

2026년 7월 21일

볼리비아 김혜리 선교사 소식

안녕하세요? 1년만에 볼리비아 선교 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에 치료차 나가서 10개월 정도 머물다 선교지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상상도 할수 없었던 많은 일들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 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 하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HC 선교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갈수 있는 비행기 표를 도움받아 한국으로 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갈수 있었기에 여기에서 진료 되었던 2가지 건강 문제에서 한곳은 오진임이 드러 나고 다른곳에 문제가 있다는게 알게 되었고 정말 문제가 있던 곳도 무사히 치료 받고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도와 주신 한분 한분들을 위하여 저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후원 교회 없이 사역하던 저에게 기적과 같이 파송교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오기전 전도사로 섬기던 전농교회에서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불굴의 의지와 협조해 주신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파송예배까지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파송교회 도움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치료도 선교사특혜를 받아 무사히 수술도 잘 마치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파송교회에서 귀국하는 모든 여정 비행기 경비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락방 교회 36주년 창립예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회주의 (전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세력)가 주도한 50여일간의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농성과 도로봉쇄 시위로 인해 수도인 라파스는 음식물 부족과 교통편 마비, 비행기 운항도 취소되는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코차밤바는 볼리비아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차밤바를 도로 봉쇄로 막으면 볼리비아 전국이 거의 마비상태가 됩니다. 도로와 도로, 동서남북을 이어지게 하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코차밤바 주위에서 생산되는 야채들이 있어서 라파스에 비하면 나왔지만 도로봉쇄로 물건들이 유통이 않되니 슈퍼마켓에 물건들이 바닥나고 시장도 비었다는 소식들을 제가 볼리비아 도착전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되었을때쯤 결국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90일 동안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군인들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시작했고 또 한 장기간 도로 봉쇄와 시장 불유통의

불편함으로 피로감에 싸인 시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지금은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 공급이 막혔던 터라 주유 공급도 원활 하지 않아 제가 차에 기름을 넣는데 5시간을 기다려 채워 넣을수 있었습니다.

7월 4일과 5일은 다락방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동기인 김 창기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여전도회원들에게 요리 강습도 해 주셨습니다. 고산병으로 두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론을 강의해 주셔서 교인들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조언들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창립 기념일 1주전에 도로 봉쇄가 풀려서 두번째 교인들도 함께 참석해 기쁨에 동참해주었고 거의 일년 동안 보지 못했던 두 교회 교인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볼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새벽별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양쪽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일년치 후원금도 전달할수 있었습니다.



두 교회 연합행사

7월 18일에는 두번째 교회 풍성한 삶 교회에서 다락방 교인들과 함께 교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뽀빠꾸(땅을 파서 나무들을 태워 돌들을 뜨겁게 달군 다음 돌들위에 고기와 감자등을 넣고 흙으로 덮어서 익힌다음 먹게되는 요리 방법)를 해먹으며 기쁨의 교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전 문제

두 교회 연합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술취한자가 교회 담벼락 어두운데서 기다리다가 교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려하는걸 장로님이 제지를 하자 술취한자가 장로님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교회 사택에 살고 있기에, 술취한 자가 제가 교회 안으로 혼자 들어 오는것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 이었습니다. 교인들 단독 방에 알렸고 곧바로 달려와준 한 가정에 남자들 6명이 와서 교회 둘레를 돌아 보았고 술취한 자가 잠깐 떠났어도 위험한 상황이라 교인이 자기 집에가서 피신해 잠을 자라고 하여 교인집에가서 하루밤을 보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는 자파레지역 개신교회에서 예배중 말씀전하던 목사가 피한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직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지역은 전전 대통령지지 세력들 지역이라 자기들 반대파라 생각되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

어나온 합니다. 그곳에서 살해 당한 목사들이 2-3 명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소냐 교인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두교회가 연합 교재를 갖던날 소냐 자매가 아픈 교인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년전 제가 오류로 지역에 사역하러 갈때 저와 동행하였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기간동안 소냐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아픈 교인들에게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냐가 예수 믿기전 한쪽눈이 안 좋은데 그 눈으로 집송 모양을 한 악한 영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싸울때에는 서로 칼을 들고 싸웠다고 합니다. 두부부가 세례받은 후로 악한 영들도 보지 않고 칼들고 싸우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삶의 변화 입니다.

기도 제목

1. 치료 받으므로 한국에 있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감사
2. 파송교회 허락하심을 감사
3. 치료를 잘 마치고 선교지로 복귀하게 됨을 감사
4. 교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